



2020 무주반딧불 그란폰도 & 메디오포도 대회(비경쟁 코스 완주 방식)가 14일 무주군 일원에서 열린다. 대회는 그란폰도(139.05km)와 메디오포도(83.86km) 방식으로 치러진다.

적상산 정상까지 자전거 타고 '씹씹'

14일 무주 반딧불 그란폰도·메디오포도 자전거 마라톤
139.05km 그란폰도·83.86km 메디오포도 방식으로 진행

2020 무주반딧불 그란폰도 & 메디오포도 대회(비경쟁 코스 완주 방식)가 14일 무주군 일원(무주읍 예체문화관 주차장 출발~적상산 정상 주차장 도착)에서 개최된다.
(사)대한자전거연맹이 주최하고 (사)전북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 2020 무주반딧불 그란폰도 & 메디오포도 대회는 환경의 소중함을 나누고 자전거 타기 붐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1,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회는 그란폰도(139.05km)와 메디오포도(83.86km)방식으로 치러지며 오전 7시 30분 무주읍 예체문화관 주차장을 출발(무주-부남-안성-적상-설천-무풍면 일원 완주)해 적상산 정상 주차장에 도착하는 코스다.
무주군은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공무원과 경찰, 자원봉사자(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등 370여 명을 운영·유도 요원으로 현장에 투입할 예정으로,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별도의 개·폐회식(시상물품 택배 발송)은 하지 않고 발열체크(드나무운동장 입구, 최북미술관

입구, 국민체육센터 입구/근무자 마스크 착용)와 방역소독(예체문화관 등)을 추진하는데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참가선수와 진행요원을 대상으로 개인위생·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 씻기, 생활 속 거리두기, 클럽 등 방문금지, 발열 등 이상 증세 시 대회 참가 불가 등)을 담은 내용을 인터넷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다.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체육진흥팀 서종열 팀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회를 치르게 돼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대회 준비로 그 어느 때보다도 완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란폰도'는 이탈리아어로 '긴 거리를 이동한다'는 뜻으로 유럽을 비롯한 각 국에서 자전거 마라톤 이벤트로 개최되고 있으며 아마추어와 프로 구분 없이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자전거 동호인들의 축제로 명성을 높이고 있다. 무주대회는 지난 2010년 시작돼 올해로 10회 째를 맞는다. /무주=전문선 기자

인종차별 반대 세리머니 '징계 없다'

독일축구협회, 플로이드 사망 관련

독일축구협회(DFB)가 미국 흑인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관련한 분데스리가 선수들의 인종차별 반대 세리머니에 대해 징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DFB는 4일(한국시간) "제이든 산초(도르트문트) 등 일부 선수들이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플로이드의 사망에 대해 보여준 세리머니를 징계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산초는 1일 경기에서 꼴을 넣고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Justice for George Floyd)'라고 적힌 수트를 꺼내 카메라 앞에 섰다. 정치·사회적 표현 금지 규정 때문에 경고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미국 국가대표로 독일에서 활약 중인 웨스턴 맥케니(살체)가 베르더 브레멘과의 경기에서 규탄 시위를 지지하는 밴드를 착용하고 경기에 나섰다. 하얀색으로 된 밴드 위에는 역시 '조지'를 위한 정의라고 쓰여 있다.
지난달 미국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흑인남성 사망 사건 때문이다. 플로이드라는 흑인 남성이 지난달 26일 백인 경찰의 과도한 체포 행위

로 사망했다.
경찰이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강하게 눌러 진압하고, 플로이드가 "숨을 쉬지 못하겠다"며 애걸하는 모습이 동영상상 통해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안겨줬다.
사건과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번졌고, 이는 세계 스포츠계에 영향을 줬다. 최근 유럽 축구 무대에서도 이에 항의하는 세리머니가 이어지고 있다.
그라운드 위에서 정치·사회·종교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DFB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날 국제축구연맹(FIFA) 지인인 인판티노 회장이 "우리는 플로이드 사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잘 공감하고 있다. 줄곧 캠페인을 벌인 것처럼 어떠한 인종차별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분데스리가 선수들의 세리머니는 처벌이 아닌 박수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DFB는 "인종차별 반대를 지지하는 행동에는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플로이드 관련 세리머니도 징계는 없을 것이다"고 했다. /뉴시스

'신고 의무화'로 폭력 방지

인권위, 체육계에 지도자 등의 의무조항 신설 권고
관련자 징계 요구... "폭력 등 발생 의무 신고
피해 주장에 소극적 대응, 미조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체육선수의 폭력, 성폭력 피해 주장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면서 체육계에 직원, 감독, 코치 등의 신고의무조항 신설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장을 상대로 "선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체육지도자를 조사하고 소속 시·도 체육회 인권보호 업무 담당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지역 구청과 체육회 측에는 선수의 피해 주장에 대해 미진하게 대응한 담당자를 징계하고 "폭력, 성폭력 발생 시 직원, 감독, 코치 등이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조항을 신설하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
이는 지난해 한 광역시 구청 실업팀 선수가 훈련 중 다른 선수들로부터 성추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호소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에 따른 인권위 판단이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피해 주장이 있었음에도 시체육회와 구청 차원의 조사가 없었다는 점 등 충분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가해 혐의 선수들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뒤 사직했다고 한다.
또 피해를 주장한 선수는 가해 혐의가 있는 선수들을 신고해 현재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체육단체 업무 수행자, 스포츠계 지도자 등은 스포츠 현장에서 폭력적 행위나 환경으로부터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사실 호소가 있었음에도 스포츠계 지도자가 폭력, 성폭력 신고 사항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결과적으로 피해자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구청과 시체육회 담당자가 소속 팀 선수에 의한 폭력,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인지했음에도 사실관계 파악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인권보호 의무를 받기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뉴시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